

월간 주요 이슈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3. 1. 2.)

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·완구류 34만 개 적발 - 국표원·관세청, 겨울철 국민생활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결과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, 이하 국표원)과 관세청(청장 윤태식)은 11월 4주간 (11.3~11.30)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, 전기찜질기,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*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,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
 - *전기담요·매트, 전기방석·온열시트, 전기손난로, 전기찜질기, 전열기구, 가습기, 관상어용·식물용 히터, 체인형 조명기구, 스키용구, 스노보드, 온열팩, 운동용 안전모, 가스라이터, 완구, 유아·아동용 섬유제품 등
- 적발된 물품으로는 △완구(약 19만 개)가 가장 많았으며, △온열팩(약 14만 개), △전기찜질기(약 8천 개)가 그 뒤를 이음
-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△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(약 19만 개), △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(약 11만 개), △안전 표시기준 불충족(약 2만 개), △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(약 1만6천 개) 순으로 나타남
-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,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됨
-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,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,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“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·외 리콜 생활제품,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-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“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·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·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”고 강조

❖ [참고]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유형

구 분	품목명	집중검사 부적합 적발				조치 내용
		업체수 (수입)	모델수	건수	수량	
① KC인증미필	완구	40	33	67	89,583	통관보류
	스노보드	8	10	12	1,349	
	운동용 안전모(스키·스노보드)	2	2	2	200	
	가습기	2	2	2	14	
	스키용구(스키·스키화·스키바인딩)	1	1	1	8	
	그림물감	1	1	1	18	
	온열팩	1	1	1	100,000	
	체인형 조명기구	1	1	1	150	
	소 계	56	51	87	191,322	
② 허위표시	완구	25	29	35	74,700	통관보류
	유아용 섬유제품	4	5	5	2,046	
	스노보드	1	1	1	5	
	가스라이터	1	1	1	2,000	
	온열팩	1	1	1	25,000	
	전기찜질기	1	1	1	4,100	
	소 계	33	38	44	107,851	
③ 표시위반	유아용 섬유제품	6	28	29	797	통관보류
	완구	16	26	28	20,670	
	스노보드(보드·부츠·바인딩)	9	15	15	343	
	스키용구(스키·스키화·스키바인딩)	4	9	12	573	
	운동용 안전모(스키·스노보드)	4	4	4	58	
	가습기	1	1	1	1,482	
	전기손난로	1	1	1	200	
	전열기구(전기스토브·전기온풍기 등)	1	1	1	824	
	체인형 조명기구	1	1	1	50	
	소 계	43	86	92	24,997	
④ 안전기준 부적합	완구	1	1	1	240	통관보류
	온열팩	1	1	1	12,000	
	전기찜질기	1	1	1	4,100	
	소 계	3	3	3	86,435	
합 계		135	178	226	340,510	

비고)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,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